

# 대선링 오른 이낙연... 이재명과 각세우며 단일화 '저울질'

### '영남 역차별' '미 점령군' 메시지 실패 집중 공격 언변, 본선 경쟁력으로 이재명 넘는 게 1차 관문 단일후보 정세균 회동...반이재명 연대 형성 관심

5일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문 기자,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를 거치며 입지를 다진 거물 정치인이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 1차 관문은 지난 1년여간 지지율 독주를 달려온 이재명 경기지사를 누르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것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전 대표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동아일보 기자 시절 인연을 맺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2000년 정치에 입문, 전남 함평·영광에서 내리 4선을 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당선패 행정가로 변신한 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로 발탁됐다. 총리 시절 '사이다 발언'과 '깨알 행정'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으며 2년7개월 '최장수 총리' 기록을 쓰고 여의도로 급이환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 5선에 성공한 그는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며 승승장구를 이어갔다. 그러나 한때 40%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를 하락과 한 배를 타고, 연초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과 4·7 재보선 참패라는 악재를 겪으며 이 지사와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

졌다. 이 전 대표는 경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이재명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메시지 리스크'를 집중 공격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의 불안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안정감을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첫 TV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을 두고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정치인이 지지를 얻기 위해 지역주의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방역 수칙을 위반해 도지사 공판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배재정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이 지사가 구공공결

공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명백히 의혹을 소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지사의 '미 점령군' 언급에 대해 "지도자는 자기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님께서 그동안 무형으로 어려해 버티시다가 이번엔 법정구속까지 됐다. 그건 꽤 크다고 봐야 한다. 뭔가 의 시작"이라며 '윤석열 때리기'에도 가세했다. 이 전 대표는 특유의 언변 능력으로 존재감 보여주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정감 있는 후보', '본선 경쟁력'을 무기로 이 지사와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쏠아올린 '반이재명 연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온라인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 = 이낙연 캠프 제공)

대' 참여도 저울질 하고 있다. 이 의원과 정 전 총리는 단일화 논의 결과 정 전 총리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여의도 모처에서 정 전 총리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민주당부 4기의 탄생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두 후보 측은 회동 성격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연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경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정세균 '연료·조직력'+이광재 '정책' 단일화...호남 표심 움직이나

### 정세균으로 단일화...이광재 "최선 다해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총리로 후보 단일화 합의를 밝힌 후 손을 잡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단일화에서 정 전 총리가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호남 출신으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정 전 총리가 이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볼 지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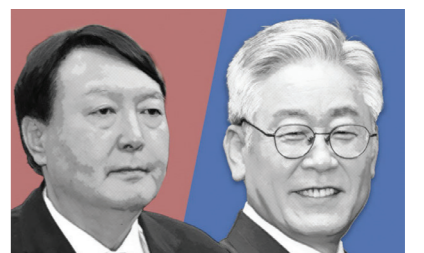
이 쏠리고 있다. 5일 국회와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나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고 정 전 총리는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당부 수립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장담을 위한 혁신 연대"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두 사람은 후보 단일화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전 총리의 인지도와 조직력에, 이 의원의 정책이 가미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주장이다. 두 사람은 후보단일화 선언 후 지난 3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당 적용된 이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정 전 총리가 대통령 후보 조건으로 적통성과 유능함, 도덕성을 꼽으며 자신의 연료와 능력으로 지지를 호소한 반면, 이 의원은 공약, 정책으로 시민과 당원들의 시선을 잡았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도덕성이 없으면 지도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 정세균은 도덕성하면 상위 1%에 들 자신이 있다"면서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는 한편, 여러 논란으로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 의원은 광주시민과 당원 앞 PT 발표에서 광주 AI 특구, 아시아전통문화특구, 전남대학교 대학도시, 첨단치과산업 등 광주를 중심으로 둔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다루었다. 이 의원의 '대학도시'는 전남대학교 캠퍼스 안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싱가포르와 홍콩 수준의 기업세 혜택을 제공해 대학을 특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조선대학교는 치과대학과 첨단 치과산업 관련 기업을 연계해 새로운 경제엔진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특구'는 광주과학기술원에 인공지능대학원 개설하고 광주에 AI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더불어 아시아문화의전당과 비엔날레 지구에 걸쳐 '아시아전통문화특구'를 만들고 유네스코문화분야 산하기구와 국제아시아문화포럼 등을 유지해 국가 문화컨텐츠 경쟁력을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날 정 전 총리를 적극 도울 뜻을 밝혔으며 선대위원장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윤석열 31.4% 이재명 30.3% '격차 최소'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은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두 사람 간 격차가 약 4개월 만에 최소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31.4%, 이 지사 30.3%로 조사됐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12.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9%,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3.9%, 최재형 전 감사원장 3.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1%, 정세균 전 국무총리 2.6% 등의 순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 지사는 1.9%포인트 상승한 반면 윤 전 총장은 1.0%포인트 떨어졌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 격차는 1.1%포인트로 지난 3월5~6일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앞선 이후 격차가 가장 가까이 좁혀졌다. 이 전 대표의 경우 0.7%포인트 올랐다. 세부적으로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48.9%), 대구·경북(36.2%), 가정주부(41.6%), 자영업층(41.1%), 보수성향층(50.1%), 대통령 국정수행 부



정 평가층(55.6%), 국민의힘 지지층(66.1%)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난주와 비교해 대구·경북에서 9.3%포인트 떨어졌으며 중도층에서도 32.8%를 기록하며 한주 새 6.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이 지사는 40대(43.6%), 광주·전라(35.0%), 블루칼라층(39.8%), 진보성향층(48.4%),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4.2%), 민주당 지지층(54.0%)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전주대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5.8%포인트 올라 30.9%를 기록했으며 블루칼라층에서도 10.9%포인트 상승했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2%로 전주대비 2.0%포인트 하락했으며 민주당도 31.5%로 2.5%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열린민주당 6.8%, 국민의당 6.0%, 정의당 5.0% 순이었다. 뉴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b>기사제보</b> (062) <b>222-2580</b>	<b>광고문의</b> (062) <b>228-2580</b>
---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